

‘맞히는 재미’ 예능에 부는 퀴즈 바람

‘유 퀴즈 온 더 블럭’ ‘꿀잼 퀴즈방’ 등
방송 후 문제·정답 SNS서 재생산 인기



과거 전성기를 누리다 잠시 ‘주춤’하던 퀴즈쇼가 최근 다시 새로운 예능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대100’과 같은 스테디셀러 외에도 시청자 참여형 퀴즈쇼와 오락형 퀴즈쇼가 화제가 됐다.

‘여행 예능’, ‘관찰 예능’ 등이 주류를 이루는 최근 예능계에서 ‘가족오락관’이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등 과거 인기를 끈 퀴즈쇼 형식 프로그램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은 시청자 참여형 퀴즈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기존 퀴즈 쇼와의 차별화를 위해 길거리로 직접 나가는 모양을 택했다.

유재석과 조세호가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일상에 숨은 퀴즈왕을 찾는데 출근길 직장인, 등굣길 학생, 편의점 직원, 어르신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다. 무작위로 참여자가 선정되는데 유재석의 노련한 진행을 통해 재미가 배가된다.

시청률은 1~2%대를 기록하지만, 화제성과 파급력은 크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나온 문제들은 SNS에서 계속 회자한다.

최근 tvN 관계자는 “MC보다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청자 호응을 받는다. 일반 시민이 등장해 퀴즈를 푸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동질감과 몰입감을 주고 이들의 리액

션과 토크가 기존 예능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장난 섞인 반응을 해주는 유재석과 조세호 호흡도 프로그램 묘미”라고 덧붙였다.

KBS 2TV ‘꿀잼 퀴즈방’은 거리로 나가는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자 참여를 유도한다.

KBS와 모바일 라이브 퀴즈 앱 ‘잼라이브’가 협업해 모바일 퀴즈를 안방으로 옮겨왔다. 앱 설치 후 퀴즈를 모두 맞힌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을 준다.

MBC TV ‘뜻밖의 Q’는 반대로 시청자들이 낸 퀴즈를 연예인 출연자들이 맞히는 형식이다. 출제자 성역이 없이 기존 퀴즈 형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퀴즈를 등장시키겠다는 출제 의도에 맞게 시청자들은 영상, 이모티콘 등 여러 방식으로 문제를 냈다.

그러나 저조한 화제성과 시청률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영을 눈앞에 맞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 퀴즈쇼도 선전한다.

EBS TV ‘장학퀴즈’는 1973년 MBC에서 시작해 45년 넘게 방송 중이다.

1명의 도전자가 100명의 출연자를 상대로 퀴즈대결을 펼치는 KBS 2TV ‘1대100’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말에 관한 문제를 맞히는 KBS 1TV ‘우리말 겨루기’도 빼놓을 수 없다. 2003년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매주 8~9%대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한국 그룹 최초 ‘아메리칸뮤직어워즈’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공연장에서 열린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트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문에는 카디 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션 멘데스 등 경쟁한 아티스트들이 후보로 올랐으나 방탄소년단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영국 O2 아레나 공연 때문에 이날 시상식에 불참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멤버들은 “페이보트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현재 북미 투어를 마치고 유럽 투어를 위해 런던에 있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팬클럽 아미 여러분께 고맙다”며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고 특별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메리칸 뮤직어워즈는 빌보드 뮤직어워즈, 그래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한편 미국을 흔든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 O2 아레나 데뷔를 위해 마침내 런던에 입성했다. 이에 미국과 더불어

어 팝 시장을 양분하는 영국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은 9~10일(현지시간) 런던 O2 아레나에서 4만 관객과 함께 유럽 투어 포문을 연다.

O2 아레나는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이 열린 대형 공연장으로, 콘서트 표 4만장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완판됐다. 차트 성적만 봐도 영국에서 이들의 인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일본에서 출시한 세 번째 정규 앨범 ‘페이스 유어셀프’(FACE YOURSELF)는 ‘영국(UK) 오픈셀 앨범 차트 톱 100’에서 78위를 기록했다. 한국 가수가 일본어 부른 노래가 영국 차트에 진입한 이례적인 사례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 성장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번 더 스테이지’가 CGV에서 극장판으로 개봉한다.

10월 가요계에 따르면 이 영화는 ‘2017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3: 더 윈스 투어’ 막전막후를 생생하게 담은 다큐멘터리다.

300일간 세계 19개 도시에서 펼친 공연 과정에서 멤버들의 의견 충돌과 무대 뒤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이 시리즈는 총 8부작으로 제작돼 올해 3~5월 유튜브 유료 회원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에서 공개됐다.

개봉일은 조만간 정해진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수지 “저 이제 품절녀 돼요”

라디오서 결혼 소식 알려

개그맨 이수지(33)가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한다. 이수지는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이수지의 가요광장’ 오피니언에서 “저 결혼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진한 사랑에게는 가장 먼저 받고 싶고 가장 먼저 주

고 싶은 것이 청정장이다. ‘가요광장’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이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이수지가 품절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짝꿍과 평생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좀 더 많은 분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산소리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0 UHD 스텔라(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50 UHD 맨드롱 또또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UHD 한식의 마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40 동물의 건축물 플러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판다랑 55 숨바꼭질(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뒤뚱뚱 로고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2018 영화의 바다로	1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무학행(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자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브24 55 속보이뉴스TV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스텔라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중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무학행 1~2부
12	00 2018 춘천 가족음악축제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워터뉴스 여성관찰보고서)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알수록 신비한 부탄 4부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 트라시앙제)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08:45 칼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나의 좌충우돌 집짓기 4부 그 집엔 누가 살까?)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영란 오이무침과 대게살 우동)	16:30 칼랄라 뿌우(재)	25:10 과학 다큐 - 비온드(Beyond)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1일(음 9월 3일 丙子)

<p>36년생 미루지 말고 보충해줘야만 한다. 48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인다. 60년생 현재의 처지와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84년생 미연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2, 17</p>	<p>42년생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54년생 앞서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다. 66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78년생 범을 잡으려거든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자. 90년생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용의주도함이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55, 51</p>
<p>37년생 백마디의 말보다 한 건의 실행이 더 낫다. 49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다. 61년생 의외의 일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73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리라. 85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81, 00</p>	<p>43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55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는 마당이다. 67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79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91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8, 87</p>
<p>38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 하리라. 50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62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74년생 급하게 서두른다면 완성에 이르던 일도 버리게 될 것이니 조절하라. 86년생 세심하게 살펴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27</p>	<p>44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56년생 결실을 보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다. 68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극히 현명하다. 80년생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길하다. 92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 행운의 숫자 : 74, 64</p>
<p>39년생 외형적인 판단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51년생 닭 쫓던 개 의 양태가 될 수도 있다. 63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처음에는 엇갈렸다가 나중에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87년생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17, 25</p>	<p>45년생 조정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57년생 대소가 아니라 핵심 유무의 문제이리라. 69년생 가장 건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이 된다. 81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나. 93년생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레 풀리는 형상이리라. 행운의 숫자 : 28, 05</p>
<p>40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52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64년생 보기 드문 현대 앞에서 놀라리라. 76년생 배려에 깊이 감사하게 되리라. 88년생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리라. 행운의 숫자 : 29, 82</p>	<p>34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46년생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58년생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70년생 번거로움이 대단할 것이나. 82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이니 방심하지 않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87, 78</p>
<p>41년생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나. 53년생 잘못 하다가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나. 65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77년생 기준이 있어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나. 89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6, 57</p>	<p>35년생 대동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렵잡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47년생 방심한다면 옹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59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71년생 넉넉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낫다. 83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0, 68</p>